

리레이 2 수행일기 <上>

아주 어렸을 적에 읽어서 제목조차 생각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 마녀 이야기인데, 자신의 성에 들어오는 나그네를 자신의 침대에 눕혀보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침대에 맞추어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잡아당겨 늘려서 침대에 맞춘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속뜻을 잘 모른 채 '나쁜 마녀'라고만 생각하던 그 마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나의 잣대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나라는 생각(俄相)의 또다른 이름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통도사 포교당인 구룡사가 있다.

천막법당 때부터 나는 부처님과 마주 앉아 내 고약한 심경과 인간에게 보이지 못하는 결점 투성이의 마음, 마음 그리고 눈물까지도 골짜기 토해내곤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처럼 웃으셨고, 그리고



이금현

경동련 부회장
자비의집 운영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그런 따뜻한 가슴으로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 사는 최상의 길이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게 아닐런지.

시봉드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려 자비의집 공간안에 내려오시는 할아버지 같은 큰스

배고픔 덜어줄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할아버지·할머니들 모두가 천진불

슬퍼하셨다.

필자가 수행을 시작할 즈음, 각 사찰마다 나름대로 학식을 갖춘 불자들이 늘어나고 기초 교리 그리고 금강경 등 경전을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나, 부처님 가르침은 2500년만에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듯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아내는 병이라고 했던가. 등 굽혀 부처님께 손모아 기도만 하시던 노보살님들의 자애스런 웃음은 기복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주변엔 내 잣대로만 남을 재는 그런 편견과 오만으로 무장한 불자가 부처님의 계율과 가르침을 종종 인용하는 걸 보게 된다.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생활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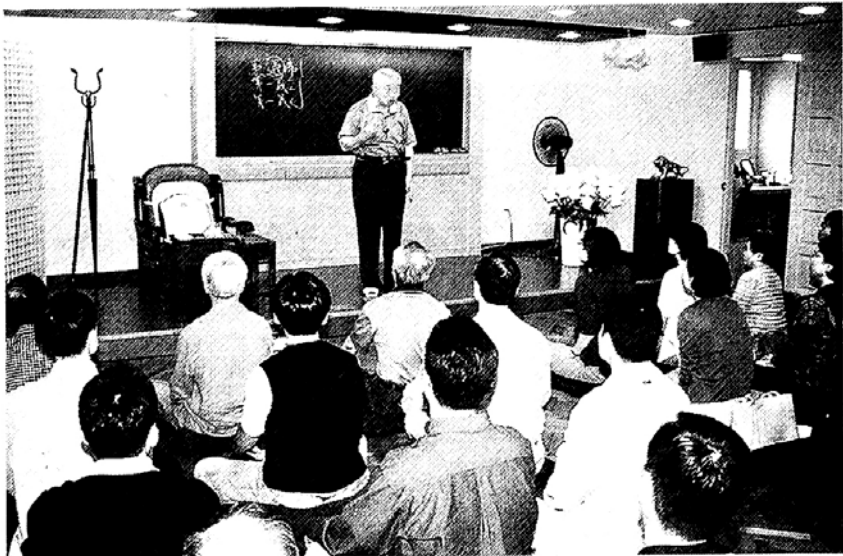
오늘도 마녀의 침대에 눕혀진 수많은 나그네들의 힘든 모습을 보며, 지식은 지혜와 반비례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 본다.

님의 마음과, 치마 걸어 속곳 주머니에서 동전 몇냥 꺼내는 할머니에게 식구 이름 적어 올리라며 예쁜 연등 달아주시던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의 환한 웃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게 된다.

추적거리는 가을비 속에 오늘도 자비의집 처마 밑엔 아침을 거르신 채 빔방울을 피하며 쪼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다. 문 열기만을 기다리며...

날마다 자비의집엔 자원봉사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 위해 들쭉정성 넣어 끓이는 된장국 속에서 보글보글 우담바라꽃이 피어남을 본다. 그 우담바라꽃 향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천진불이 된다.

이 땅에 굶주리는 대중이 한 사람도 없게 하자는 취지로 1992년 문을 연 자비의집,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반찬 배달, 노인 잔치준비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산 부처'가 아닐까.



◇현정선원은 참선, 염불과 같은 '의도적' 수행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즉문즉답'을 통해 끊임없이 분별지를 깨뜨리는 방편이 아닌 방편을 쓴다. 설법중인 현정선원 원장대우거사.

서울 서초구 방배2동에 소재한 현정선원(顯正禪院). 선원이란 이름 대신, 'Fuoyee!' 라는 영문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알 듯 모를 듯한 이 글자에 현정선원의 기풍이 다 담겨있다. 'Fuoyee!'는 '회이!' 라는 감탄사. 모든 시를 걱정 다 날려버리고,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자는 것.

간판부터 '파격'으로 다가오지만 의외로 방편은 지극히 평범하다. 아니, 방편이랄 것도 없다.

현정선원은 '법부는 하찮고 성인은 저 높은 곳에 있다'는, 저 거룩한 성인처럼 되려면 좌선, 독경, 염불, 명상 등의 고된 수행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다 쓸데없는 분별로 간주한다. 모든 이가 있는 그대로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투철히 알면 된다는 것이다. 현정선원은 이를 '일승법(一乘法)'이라 한다. 선원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방편은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는 문답법인 셈이다. 9월 27일 오후 2시, 정기법회에서 한 문답.

"일체가 인연화합으로서 '나'라고 할만한 게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인연에 따른 망상을 좇으며 나태를 일삼고 무기하게 경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정운)

'있는 그대로 부처' 아는 것이 일승

'분별지' 타파...수행 방편도 쓸데없는 일

즉문즉답으로 진행, '마음의 평화' 성취

"나"까지 포함한 세상만사는 분명히 망상의 소산이므로 실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허망한 법을 하지도 허물지 않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일승보살의 길입니다. 일의 성패에 관계없이 삶을 사는 사람은 일체의 두려움이 없고, 허둥거림도 없으며 후회하는 일 따위는 영원히 없는 법입니다." 대우 거사

끊임없이 분별지를 깨부수는 대우 거사의 즉문즉답(卽問卽答)과 설법은 매우 '현대적'이다. 그의 언어는 매우 논리정연하고, 불경과 선어록은 물론 현대과학을 비롯한 세상사를 두루 꿰고 있다.

현정선원은 이처럼 자유로운 수행풍토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본분도량(本分道場)임을 강조한다. 결코 무엇을 가르치거나, 닦고 배우고 하는 따위의 모든 유행(유행)에 의존함이 없이, 곧장 '자

려, '본래 스스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물론 깨달음으로써(頓悟)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자는 것이 현정선원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정선원에 인연이 닿은 수행자들은 대부분 신행경력 수십년이 넘는 구참자들이다. 보림회, 수선회, 금강경독송회 등 수행단체에서 오랫동안 정진한 불자들, 직장인, 주부, 학자 등 7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20년전에 창립돼, 89년 3층짜리 자체 건물을 마련한 현정선원에는 600여 회원이 있으며, 지난해 1월 문을 연 인터넷 사이트(www.fuoyee.or.kr)에는 2만8천여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기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2·4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02-582-9371 김재경 기자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현정선원 일승법

"마음은 본래 원만한 것, 밖에서 얻을것 없어"

현정선원 대우 원장

"이 '마음'은 본래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아무것도 밖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수행 방편에 의지하여 반복적으로 갖고 묶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없는 것만 못하니,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현정선원 원장 대우 거사(大愚居士, 72는 어떤 진리를 전해 주려 하지 않는다. 누구를 만나든 끊임없이 상대의 분별지를 부셔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깨달음의 자리임을 깨우쳐주려 한다.

"모든 부처가 한결같이 오직 심인(心印)을 전했을 뿐이며, 오직 '마음이 곧 부처인 도리'를 전했을 뿐"이라는 대우 거사는 "민약 현재 분별하고 운동하는 '선명한 깨달음의 성품'을 일명 '당신의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이거늘, 어찌 허망하게 밖으로 구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습니까"라며 반문한다.

1970~80년대에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와 함께 부산과 경남 산청에서 거사 중심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우 거사. 20여년전부터 과천과 서울 한 권에서 조용히 불법(佛法)을 펼쳐온 그는 지난 3월 설법을 모은 첫 저서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현암사를 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승 보살은 초발심에 불과(佛果)를 얻는다'는 대우 거사는 "모름지기 조출한 마음으로 '무심 무념의 삼매'에 들어 모든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인 채로 담담히 바라보며, 거들 삼가면서 조출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수행 캘린더

- 팔만사천배 참회=성철스님문도회는 성철 스님 열반 9주기를 맞아 7월7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10월 18일 오전 7시부터 25일 오전 7시까지 해인사 백련암에서 봉행한다. 추모제는 25일 오전 10시 30분 해인사 대조광전에서 봉행. (055)932-7300
- '수행과 깨달음의 길'=정보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서울 정동회관에서 '사념처관, 초기불교의 수행법'을 주제로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 강좌를 연다. (02)587-8993
-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0월 19일 오후 8시 근방도량인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에서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열고, 염불정진 및 문답시간을 갖는다. (031)723-9797
- 철야 참선정진=보림회는 매주

- 토요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서울 정릉 보림사 선방에서 토요일 월야정진을 실시한다. 부산 보림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10시 화엄사에서 좌선(7시-9시) 및 능엄경 강송(9시-10시) 법회를 연다. (02)914-6187
- 3천배 용맹정진=서울 불광사는 10월 19일(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철야용맹정진 3000배를 실시한다. (02)413-6060-2
- 21일간 용맹정진=대구 영남불

- 교대학은 복지관 개관 및 백의관 세움보살 봉안을 기념, 21일간 하루 1000배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10월 9-29일 오전 9-10시 500배, 오후 6-7시 500배, 백의관세움보살 점안법회는 10월 29일 오전 9시 50분 봉행. (053)474-8228
- 관선무 수련=전국비구니회관은 10월말까지 '관선무 지도자 대학' 수련생을 모집한다. 관선무 대불교 무예를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방편이다. (02)733-5467
- 문사수법회 수계=문사수법회는 회주 한담스님을 계사로 '새생명 탄생을 선언한다' 주제의 2002년 문사수 수계법회 잇달아 연다. 10월13일(교양, 031-972-3581), 10월20일(정진원, 042-485-8111), 10월 27일(대전, 061-381-0108)
- 가을 수련회=우리는선우는 10월 12-13일 충북 음성 미타사에서 창립11주년 기념 가을 수련회를 연다. 12일 김연호 제천지회장의 '십만배기도 수행담'도 듣는다. (02)2278-8672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자리산 실상사 사부대중들은 현대불교의 창립 8주년을 축하합니다!

자리산 실상사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
전화 063)636-3031
전송 063)636-3772
홈페이지 www.silsang.net

살법연구원·도서출판솔바람

원장 동출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403호
전화 02)720-0824 팩스 02)722-8760
메일 sulpub@hananet.net
홈페이지
http://user.chollian.net/~solbaram0824/
* 살법연구원·도서출판 솔바람은 원간 설법, 설법문인, 사보, 단행본 등 불교 관련 서적을 제작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선덕 효림
주지 일문

대중일동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TEL : 031)948-7700~1

현대불교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주경

대중일동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60
TEL : 041)662-3824

불음포교도량

불광사

주지 지범

■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27(양장포)
TEL : 064)767-2580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주지 법안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96-2
TEL : 02)395-9911

대한불교 조계종

보광사

대중일동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3
TEL : 031)948-7700~1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주경

대중일동

■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160
TEL : 041)662-3824